정책동향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확대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업체들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외화표시보험계약제도의 도입 및 부보율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해외공사 또는 플랜트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이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 등 제반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출보험공사와 외화표시로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보증서의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환율변동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업체에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포괄보험 부보율(사고시 보상율)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보험금 지급요건도 현행 수출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단축하여 그만큼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후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범위를 현행 천재·내란·환거래 정지시에만 보상하던 것을 피투자국 정부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산업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조치로 인하여 수출보험의 보증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해외발주처들이 국내 시중은행의 보증서를 거부하는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담보 융자자금 취급 확대

산업자원부에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현물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술담보 사업을 올해부터 크게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담보 사업을 크게 확대 시행키로 하고, 자금 지원규모를 '97년 11건에 29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는 90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자금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최고 300억원(150개 기업 지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기술을 담보로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산업기반기금과, 핵심 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 등이며, 기술담보 사업은 기술의 수명주기 및 가치를 미리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기술담보 가치 평가를 요청하여 기술담보 가치 평가증서를 발급 받아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담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지원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절차 간소화등 운용절차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내년에는 자금규모도 더욱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가동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등 기술개발사업 추진부처의 증가에 따라 검색인력 소요 및 검색시간이 크게 증가되는 것에 대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과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중복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

산업자원부의 전산검색시스템은, 각 자금지원 기관별로 개발기관, 개발책임자, 과제명, 개발기간, 개발목표 및 내용 등 9개 필수정보를 데이타베이스로 입력한 후 신규 신청과제에 대해 컴퓨터가 사전입력된 과제의 9개 정보자료를 토대로 1對 多방식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과제명 및 개발목표 등 동의어가 50% 이상 반복되면 유사한 중복과제로 출력하는 것이며, 출력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기존과제의 기술내용과 신규과제의 개발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여 직접 검증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의 검색전산망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타, 건설기술관리센타,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여타의 연구관리기관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기술전수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지원하여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은 어디에서도 중복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검색시스템 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과거에 지원된 정부자금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여부를 검색키로 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 고의로 중복 지원받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정부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지원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 사용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자본재 전략품목 고시

산업자원부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사업'의 금년도 개발대상 전략품목으로 417개 품목, 신기술 보급대상 사업화품목으로 166개 등 총 583개 품목을 발굴, 고시했다.

이중 첨단 기술분야의 핵심 전략품목 62개를 포함,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417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2,220억원의 시제품 개발자금이 지원된다.

또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추이를 감안, 새롭게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 자본재에 대해서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개발자금의 20% 수준을 고시되지 않은 일반품목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이 완료돼 보급활성화를 위해 모델개체 및 사양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화품목에 대해서는 수요자금융, 우수품질(EM)마크 획득에 대한 우대 등 판로지원과 아울러 은행의 일반시설자금,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산업기반자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지난해 7. 1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43개국이 참여하여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기술제품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철폐키로 합의, 시행중에 있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추가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정보기술협정의 추가품목 검토를 위한 ITA—Ⅱ 협상을 '98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99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정보기술협정 참여국들로 하여금 추가품목 희망리스트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75), EU(60), 일본(46) 등 13개 국가가 약 400여개 품목을 추가대상품목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품목중에는 기왕의 통신기기, 컴퓨터 등 7개 분야는 물론 광학기기, 영상기기, 산업기계 등까지 대폭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EU, 일본 등 3개국은 ITA—Ⅱ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 130여개의 PCB 및 축전기 제조장비를 추가 제안했다.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조합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이 제한되는 등 경쟁요소가 강화된다.

대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나 벤처기업, 여성경제인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항이 신설되고 기술·품질수준이 높은 업체에 대한 배점 기준도 더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사장 등 임원이 운영하는 기업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물량에 당해 기업이 전년도에 배정받은 비율을 곱한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1개 업체 또는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배정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에 대한 배정비율도 65%에서 60%로 낮춰 다수의 중소기업자에게 물량배정의 기회를 확대했다.

대기업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비율은 15% 이내에서 12% 이내로 줄였고 비조합원인 대기업의 경우는 물량 배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반면 조합원간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량을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수출업체에 대한 배점 항목을 신설(7~11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우대했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인에 대한 배점을 5점 이내에서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기술 및 품질수준에 대한 배점기준도 상향 조정됐는데 신기술개발 항목은 기존의 20~26점에서 22~28점으로, 품질수준은 45~55점에서 47~57점으로 높였다.

이 가운데 신기술개발 항목의 범위에 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품질수준 항목에는 NT(신기술), GR(우수재활용) 마크 획득업체 등이 추가됐다.